

海外速報

美今年半導体売上 4.2% 성장

- 日本市場은 29.6% 성장 예측 -

美国의 In State社가 발표한 예측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미국의 半導体市場 매상고는 전년대비 4.2% 증가된 84억 3,000만弗이 될 전망이다.

한편 日本의 반도체 시장은 금년에 29.6% 신장된 98억 5,000만弗 규모에 달하여 미국 시장을 훨씬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In State社의 社長은 그 이유를, 円高를 반영한 出荷量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87年度の 미국 반도체 시장은 86年度보다도 5.1% 성장되어 88억 6,000만弗이 되고, 日本은 6.4% 성장하여 104억 8,000만弗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규모로 보면 금년은 18.4% 증가된 254억弗이 될 전망이고, 87년은 6.5%의 미증으로 270억弗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東南亞, 87년도 經濟 低迷 예상

- GDP와 0~2% 성장선에 머물 듯 -

경제 전문지인 Asia World Street Journal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85년에 실질 성장률이 4%였던 泰國은 86년에 4.6%, 87년에 5.1%의 순조로운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에 85년의 실질 성장률이 -1.1% (추정)이던 인도네시아는 87년에 제로 성장, 필리핀은 87년에 2.7% (86년은 -0.1% 추정), 싱가포르도 2.8% (同 0.4%)의 실질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의 輸出品인 原油의 가격

이 인하되고 수출량도 감소되는 중에 債務 返済額은 증대되고 있다. 世界銀行의 조사로는 채무 반제 비율이 84년의 22%에서 85년에는 25%로 상승되어, 石油의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없는 한 수년 사이에 그 비율이 30%를 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싱가폴은 금년 1~9월의 수출고가 전년동기대비 5.4% 감소되고, 정부는 勞動部에 임금 동결과 생산성 향상을 요청, 수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原油 가격 인하에 타격을 받아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通貨切下를 단행하므로써 경합이 되는 一次 産品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졌다.

필리핀은 美·日 양국에서 원조를 받아 經濟 재건을 꾀하고 있으나 治安이 악화되고, 勞動爭議도 빈번하여 재건의 궤도에 오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투가 눈에 띄는 것은 泰國으로, 82년 이래 계속된 不況의 늪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상향되고 있는 데다가 円高로 인하여 尙日 수출도 증가, 무역수지가 대폭 개선되었다. 85년에 赤字였던 무역수지, 經濟収支도 금년 1~8월의 실적에서 黒字로 변환, 好調를 보이고 있다.

日, 금년 電子工業 生産 減少 예상

- 0.1%減 17조 6,000억円台로 EIAJ 展望 -

日本電子機械工業会(EIAJ)는 최근 금년도 전자공업의 생산액에 대해서, 上半期(1~6)의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2.5%減, 下半期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 전년 실적을

하회하는 下向 수정을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家庭用機器는 전년대비 8.2% 減, 産業用機器 同8.2% 增, 電子部品이 同3% 減으로서 전체적으로는 同 0.1% 減인 17조 6,000억円대가 되리라 한다. 그런데 下半期는 7, 8월에 전년동월대비 3% 정도 하회되어 이 하향 수정 전망조차 더 하락될 공산도 있다.

가정용기기에서는 円高에 따른 영향이 크고 또 컬러TV, 음향기기 등 해외 생산으로의 전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용기기도 당초의 두 자리 신장의 예측에서 대폭 다운, 유일한 신장세를 보여 6% 전후의 신장률에 머물 것이다.

전자부품은 그 중에서도 밑바닥을 벗어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나 연간으로 보아 5% 전후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자공업의 생산액이 전년보다 감소되는 일은 75년 이래 11년 만의 일이다.

한편 9월말까지의 주요 제품 輸出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컬러TV 완제품은 9월에도 전년동월대비 수량면에서 46.6% 감소, 금액면에서 56.4% 감소를 보여 1~9월간 누계 실적으로 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47.8% 감소된 358만 132대, 금액은 同 54.3% 감소된 1,632억 2,730만 3,000円으로 상당히 둔화되었다.

VTR은 1~9월간에 수량에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된 2,130만 2,340대였고 금액으로는 同 18.7% 감소된 9,759억 8,918만 8,000円으로, 수량은 늘었으나 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電子렌지는 수량에서 同 13.1%의 증가를 보여 516만 3,205대였으나 금액에서는 同15.0%의 감소로 1,221억 2,665만 9,000円의 수출에 그쳤다.

西独, 部品·素材市場, 87年은 7.2% 성장

- 금년은 전년 수준, 113억마르크 -

서독의 電子部品·素材市場은 84년에 26%,

85년에 13%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금년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87년에는 7.2% 신장된 120억마르크에 달할 전망이다.

同国電機工業中央聯盟(ZVEI)에 의하면 서독의 금년도 전자부품·소재시장은 113억 마르크(85년 112억마르크)로 추정되어 유럽에서는 제 1위를 마크할 것으로 전망된다.

85년의 전자부품·소재 생산은 전년대비 15% 증가된 74억마르크에 달해 처음으로 電機部品の 생산을 상회하였다. 수출은 68억마르크였다. 부문별로는 自動車용 전자의 매상고가 약 10억 마르크로 27.5%의 대폭 증가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9.4%, 87년에는 10%의 신장을 바라보고 있다.

네덜란드 電算機市場 금후 10~15% 성장

- 과거 5年間の 20%에 비해 둔화 -

네덜란드의 전자계산기 Hard·Software 市場의 86~90년간 성장은 年率 10~15%로서 과거 5년간의 평균 20%에 비해 둔화되고, 投資 및 GNP의 신장보다도 고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予測이 市場 調査会社인 IDC Benelux社에 의해 발표되었다.

同社에 의하면 이것은 User측의 신규 需要가 일단락되었으며, 일부에서 自動化의 성장이 예상만큼 되지 않은 데다가 숙련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同国 기업의 전자계산기 Hard·Software에 대한 支出은 85년이약 120억길더, 금년은 약140억길더로 오르고 90년에는 250억길더로 증가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 전체에 대한 비율은 81년의 9%에서 16%로 상승되었다.